



보도자료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115)

보도 2025. 6. 26(목) 15:00부터

매수 총 8매

생명보험협회 · RMI 보험경영연구소 · 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한·일 세미나 개최

○ 생명보험협회 · RMI 보험경영연구소 · 보험연구원은 치매 정책의 공사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치매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6월 26일(목) 오후 2시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한·일.세미나를 개최함

14:00 ~ 14:20

개회사 이순재(RMI 보험경영연구소 소장)

축사 최양호(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14:20 ~ 15:50

주제발표1 일본 치매환자 현황 및 치매정책 동향(류재광 일본 神田외국어대학 교수)

주제발표2 일본 지자체 및 보험회사의 치매대응전략(김명중 일본 닛세이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주제발표3 한국 치매실태시장과 보험회사의 역할(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15:50 ~ 16:10 Break Time

16:10 ~ 17:20

패널토론 좌장: 이봉주(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김계완(교보생명 팀장), 김규동(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철웅(한양대학교 교수)

지광운(국립군산대학교 교수), 황기현(금융감독원 팀장)

*가나다순

17:20 ~ 17:30 질의응답



- (주제발표 1) 류재광 일본 간다외국어대학교 준교수는 ‘일본 치매환자 현황 및 치매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치매정책의 패러다임을 ‘공생(共生)’으로 전환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수렴 체계를 구축할 것과, 정책 컨트롤 타워의 변경,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보험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일본의 고령화 및 치매 현황) 일본은 고령화율 29.3%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며 치매 고령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섬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5만 명이며 80세 이상 고령자도 경기도 인구와 비슷한 1,290만 명에 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고령자는 2024년 기준 710만 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약 20%를 차지함
 - 2025년 기준 일본의 치매 환자는 471만 명이고, 경도인지장애는 564만 명으로, 이들을 합한 치매 고령자는 1,035만 명에 달하며 2060년에는 1,27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대부분의 치매 고령자가 자택 및 지역사회에 거주하기에 치매 고령자와의 공존이 일본 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함
- (일본 치매정책의 특징) 일본은 1990년대부터 치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정책의 진화) 1990년대 고령자 대상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치매 특화 정책으로 진화했으며 2018년부터 범정부 대응으로 확대되어 2024년에는 관련 법을 제정해 시행함
 - (인식 전환 성과) 치매의 공식 명칭을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함
 - (정책 컨트롤 타워 변경) 치매 대중화 시대에 맞춰 치매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후생노동성에서 상위 기관인 내각부로 변경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함

- (당사자 의견 수렴 체계 확립) 정책 추진 시 치매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치매 고령자와의 공생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함
- (시사점)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치매정책 및 보험업계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국도 치매 고령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치매 대중화 시대’에 대비해 정책 패러다임을 ‘부담’ 및 ‘관리’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공생(共生)’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정책 수혜자인 치매 고령자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정책 컨트롤 타워 변경)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치매를 포함한 고령화 정책의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계의 역할 확대) 치매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보험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치매 고령자 전용 요양원 비즈니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제발표 2)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 지자체 및 보험회사의 치매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도 일본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매보험상품개발 및 치매머니 활성화 대책을 제안함
 - (지자체의 치매 관련 대책) 고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지원, 치매 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치매 정책을 추진함
 -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치매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일본 정부는 공적서비스만으로 고령자 등의 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자립적 생활 의지, 가족지원,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포괄 지원 시스템을 추진함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상황: 2023년 4월말 현재 전국에 5,431개소(브런치 등을 포함하면 7,397개소)가 있음
- 치매 서포터를 전국에서 양성하는 치매 캐리어밴 메이트는 2025년 3월말 현재 187,747명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치매 서포터 양성강좌를 수강한 치매 서포터는 총 1621만 6천 명임
- 구마모토 모델 : 치매의 조기발견과 진료체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마모토대학 부속병원 신경정신과에 설치된 중앙 치매의료질환센터와 지역에서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현 내 11개 지역정신병원의 지역 거점형 센터 그리고 지역형 센터(치매카페, 치매 콜센터, 지역포괄센터, 지역주민)를 연결하여 치매 안전망을 구축함
- 고베모델 : 치매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해 고베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최대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제도를 실시함.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엔을 지급하는 급부금제도도 도입함
- 치매카페 : 지자체는 치매 고령자와 그 가족이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인 치매카페를 운영 중임. 2023년 3월말 현재 전국 1,563개 시정촌(89.8%)에서 총 8,182개의 치매 카페가 운영되고 있음
- (일본 보험사의 개호보험, 치매보험 등 고령자 관련 대책 및 상품 현황) 일본 정부는 2019년 「치매 시책 추진 대강」 등을 발표해 치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정책 연계 측면에서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상호 역할을 보완하며 대응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개호 평균초기비용 74만 엔, 매월 평균자기부담액 8.3만 엔, 개호 평균기간 54.5개월, 보험사는 요개호 등급에 따라 일시금이나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함. 개호보험 및 개호특약 가구 가입률은 2012년의 14.2%에서 2024년에는 20.1%까지 상승하였음
 - 평균수명이 상승하면서 개호가 필요한 기간도 장기화되었으며, 치매에 걸린 고

령자가 증가하면서 치매에 걸린 고령자가 치매에 걸린 고령자를 돌보는 상황이 증가하였음. 이에 치매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짐. 보험사는 정도 치매로 판정될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치매로 판정될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함. 치매보험의 가구 가입률은 2021년의 6.6%에서 2024년에는 7.6%로 조금 상승하였음

-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과 치매머니에 대한 대책) 일본의 고령자의 주된 수입은 공적연금이며, 가계의 금융자산은 2024년 12월말 현재 2,230조 엔으로 약 60%를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음. 금융자산의 절반은 현금 및 예금이며, 치매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이에 고령자의 투자 및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고령자가 자신의 자산(현금·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생명보험 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유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권리를 가족에게 넘겨주는 가족신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 일본 보험사는 연금이 개시되기 전 사망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수급 시점까지 사망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면 연금액을 더 많이 주는 톤틴연금을 판매하기 시작함. 공적연금의 연기연금의 존재, 개호 및 의료에 대한 고령자의 본인 부담 증가 등으로 가입은 저조한 상태임
-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개인의 예금을 주식투자에 전환하게 해 일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NISA를 실시함. 2024년 1월부터는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신NISA)’를 시행하면서 NISA의 투자한도를 최대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세 배(비과세 보유 한도액 1,800만 엔)로 늘리고 비과세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함

- (일본의 과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일본의 치매 증가와 관련된 과제로는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 돌봄 제공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치매 고령자 등이 안

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정비, 행방불명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증가하는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들 수 있음

- 고령자가 증가하는 2025년 문제, 2035년 문제, 2040년 문제, 2054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VUCA시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과제임
- 의료통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JMDC(일본의료데이터센터)는 의료비 영수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자 데이터베이스와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해석하여 관공청 및 제약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치매를 포함한 새로운 의약 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통계 데이터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해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치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치매 고령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서포터 등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치매머니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신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해당 가족과 재산에 적합한 맞춤형 신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족신탁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 (주제발표 3)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치매신탁시장과 보험회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치매 고령자 400만 명 시대, 치매신탁시장 진출로 치매신탁서비스의 제공, 치매리스크의 관리, 치매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제안함

< 보험회사의 역할 >



- (초고령사회, 치매신탁의 중요성 증대)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치매환자수가 증가하고 치매고령자의 보유자산(치매머니) 증대, 치매신탁상품에 대한 국민 니즈 증대, 치매신탁활성화 정책 추진 등으로 치매신탁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 2024년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의 치매 고령자는 2025년에 395만 명에 이르고 있음
 - * 치매환자(97만 명)와 경도인지장애(298만 명)를 합한 치매고령자(395만 명)는 약 400만 명임
 - 치매고령자의 보유자산(치매머니)이 2023년 기준 154조 원에 이르고 치매신탁상품에 대한 국민니즈가 증대해 치매환자 자산관리를 위한 치매신탁이 더욱 필요함
- (치매신탁시장 현황 및 평가) 보험사의 신탁업 경영 허용으로 인해 현재 7개 보험회사가 신탁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명시적 치매신탁상품 취급은 미흡함
 - 현재 하나은행 등 은행 중심으로 지정 금전신탁 형태로 치매신탁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2020년 치매정책 이후 후속입법 부재로 치매신탁시장 활성화가 미흡함
 - * 반면, 일본의 경우, 협의의 치매신탁인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수탁고(2023년)가 약 1조 2,940억 엔에 이르는 등 치매신탁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 신탁업무의 위탁금지(재신탁 불가), 소극자산 수탁 미허용,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보험회사 치매신탁시장 진출은 매우 소극적임
- (보험회사의 역할 및 과제) 보험회사는 치매교육·신탁서비스 지원 및 제공, 치매리스크의 관리, 치매정책의 보완, 치매환자 자산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위해 치매신탁시장에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역할) 보험설계사, 임직원 등 대상으로 치매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치매서포터 역할, 치매신탁 안내, 상담 서비스 지원 및 제공 역할이 요구됨.
 - 잠재적 치매환자인 경도인지장애자 중심의 치매신탁시장에 진출해 치매리스크의 전가 역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보험에 치매신탁을 연계해 공사협력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과제) 보험회사는 치매보험과 치매신탁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설계사 중심의 신탁전문가 양성과 타금융권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치매신탁시장의 진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붙임 : 발표자료 각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